

社説  
한글頒布五百周年  
記念日에際하여

鮮만이 固으로 慰民은 情을 破는 文文字를 주시려는  
 는것을 遺棄하지않을 민망히 너百姓을 사랑하시는말, 太  
 시어 한글 기시어 배우기쉽고 日用 蒙魯本位로 삼는 民主政治

正當加納後、三西一東對、  
議會通過하였음은  
永久히戰  
怖心이各分斷에波及되고

西文化  
李熙  
文學  
—로고화상  
解說・漢八  
歌解說・  
・梅花歌  
・古典文學  
冊  
330圓 (送  
乙酉  
路永保  
京城 325

法機關에對하야하  
1 中將聲明

的 民主主義發展案을 推 委員會로부리 立法機關에 對하야 一 次 將聲明  
開히 記事 決定하였다는 것 斷言 提議가 있은바 이 案을 閣內에 매우 반갑을 지라도 充分히 考慮해야 하리라

나다 臨時立法機關樹立은 余論 爲要하리라

朝鮮民族統一의 獨立過程 이 機關은 南朝鮮上 一步를 가히 第一 立法權은 政府 高級에 屬하리라

右 諸條가 完結한 이 案은 妥協한 結果로 出되니 敬히 注意하시라

平和戰에 結合이 必要

韓利會議에서 南阿代表 演說

五里八日發A.P.公司 總白露代表「K. A. K」

로 2 案대로 醫務로推測 十周未乃至 十一月三日

되는바이로 代議院九〇名 布魯치이로 六個月後

會 民選四五名官選四五名 施實치오로보인다

【하루】하루 8日發 A.P.合圖】  
前「웃을라」 政府 內相  
「마이스나」의 妻는新  
聞記者團에게 다음과같은  
與談하는事實을發表하였다  
「웃을라」는 3개월이이전

奉願期限 十月十二日限  
試驗科目 十月十五、十六日  
其他詳細來校問詢  
京城府城東區金湖町山二六  
崇文商業中學校  
電話局局番三三三三號

八日午前十一時豫定이잇으나 아작  
時軍救應係로印刷物이

45名選出

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
| 李公報部長 | 吳하야   | 發表吳하야 |
| 은記者團  | 와는 이미 | 無電    |
| 파會見하  | 絡하야   | 立法機關  |

★  
「시아슬」八日 U.P. 發朝  
作會社發表에 依하리

鮮)보우잉航空機 型  
今設望事當局州에서  
☆  
『豐利』과 西歐間에는  
立할 餘地가 없는만치  
世界는 平和樹立을  
非 統一戰線을樹立하

死亡을 얻고 「百戰百勝」을  
「死」를 얻고 「百戰百勝」을  
「死」를 얻고 「百戰百勝」을

龍山公立中學校（電話七六一）

七原則發表에 밝가 各政黨의 見解는 大體 認定하고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이<br>의<br>發<br>憶<br>이다 | 期<br>中<br>糊<br>糧<br>寄<br>賦 | 二、第三條에 있어서<br>土<br>地<br>開<br>墾<br>庫<br>政<br>革<br>하<br>야<br>耕<br>作                      | 設<br>의<br>反<br>響<br>은<br>어<br>디<br>隨<br>時<br>出<br>現<br>可<br>할<br>다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否<br>定<br>定<br>한<br>는<br>否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時<br>狀<br>轉<br>政<br>策<br>의<br>反<br>響<br>은<br>어<br>디<br>隨<br>時<br>出<br>現<br>可<br>할<br>다 | 否<br>定<br>定<br>한<br>는<br>否   |

精來가되고 胃  
 民이 斷言  
 不 允乎  
 斷乎  
 民 議  
 支持할  
 當 分間沈默을 지  
 實現의 努力  
 實民主主義  
 政治의 理念  
 根本의 解決  
 民生問題의  
 當面問題의 解決의 眞

|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完全金 | 무엇으로도 | 臨政  | 地主  | 農民會 | 擔取計 |
| 對峙  | 區々한   | 論議가 | 府가  | 土地에 | 對峙絶 |
| 成하다 | 다만土地  | 間斷  | 은으로 | 支拂었 | 것인가 |
| 對峙  | 區々한   | 論議가 | 府가  | 土地에 | 對峙絶 |
| 完全金 | 무엇으로도 | 臨政  | 地主  | 農民會 | 擔取計 |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무슨       | 對潮             | ？政       |
| 데 있어서    | 를              | 고 있다.    |
| 決定的役割을 하 | 危殆에 하리라고       | 우리는蘇聯이平和 |
|          | 憂慮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| 理由는 없다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| 今日美國은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| 世界最大強國兩이라 한 것을 |          |
|          | 외국에서 알고 있다     |          |

기간을 홍하야  
 후로 보내기  
 부러지  
 자유를 가져오  
 경제의 재건을  
 가진 것만으  
 는 없으  
 는 데  
 로  
 합시다  
 양  
 (洋行)  
 원스·영천·대원

何等會及한 招來하게 될 것이오 이財政  
本黨은 이 的 敬縱을 免할려면 不  
으로 하야 四、 合作委

族의總意를代表  
得已農民에게  
重税畧課하  
의約定이요

將來設監獄 ◇ 支持島決議 韓獨黨 이다  
其他政黨及 七原則은 民主主義國家 問題는 오직 實踐에있  
對함 拘束力의 受當한條件이있나 다 大死一帯의 覺悟가

아니것을附言하여는다  
◇ 독립研究所 梁又正  
一、土地改革에있어 有  
委員 經開要綱條件은  
托으로成成立될것이

源▲出版局朴允錫▲移送局  
李惠求

모란과 정은은 자가우사리

[illegible]

정신이 아슬아슬 참다운 자유를 가져오리라고 믿  
었기때문으로  
오늘의 이때와같이 경제의재건을 위해서는 물  
자를 배기고 더 많은것을 가진것만으로써 전리어나  
기야할 시대는 다시는 없을이다  
우리는 외국인보다 더럽히고 더럽혀며 더어찌  
사. 우리생활에 진실로꼭 필요 물자를 감시 내  
리도록 더럽혀 생산할시다

● 유 한 양 행  
(柳 鵬 洋 行)  
서울 · 미국로스앤젤레스 · 동천 · 대령 · 천진

各國憲法論

10月中旬出版  
1. 都是定40國歷史3國大學、專門學校教材三政治家指導者、法律家教育家及社會一般必讀書目推薦書目

發行所  
京城府御路二丁目九一  
金龍圖書文具株式會社  
電話 01099 2566  
開張日東京 13108

京城

**崇文商業中學校**

電話局內二三三六號

初級第一學年若子名  
十月二十日亦不必備  
十月二十一日  
二十二日間  
本校教養部開辦兒童  
國民學校畢業生  
女子班女子班之編成男女共學制則已

|          |   |     |     |
|----------|---|-----|-----|
| 大授<br>李熙 | 補 | 集人員 | 願期限 |
| 朝鮮本國     |   |     |     |

朝鮮文學叢書  
內容：一、刀劍詩  
二、解脫。三、遊山歌解脫。  
解說：梅花歌解脫  
起源：古典文學  
說明：刀劍  
定價：30圓（含  
發行所：西  
月山雜誌社  
振華書局 325

著

**電池**

太陽電池  
萬能電池

京城本町二丁目  
電話 1233-1480

